

장애물 헐기

모든 사람은 속하였습니다 * 모든 사람은 봉사합니다

2013 년 겨울 96 호

주제들

겨울: 이번 호는 배우자의 장애가 결혼과 교회 및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봄: 어떤 장애우들은 매일 도움이 필요한 것 중에 집이 있는데 예산의 인하는 최후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관한 이야기를 3 월 15 일 까지 보내주세요.

여름: 어떤 일이 당신의 즐거움입니까? 장애우에겐 오락이 어떤 영향을 줍니까? 여러분의 오락에 관한 이야기를 6 월 15 일까지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 mstephenson@crcna.org • tdeyoung@rca.org

우리의 새 단장 모습

독자들은 아마 이번 호 장애물 헐기 디자인이 바뀌었음을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더 편히 읽을 수 있고 보기에 좋은 소식지가 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한 바램의 생각들이 있으시면 편집인들에게 이메일을 바랍니다: 마크 스트븐슨 (mstephenson@crcna.org) 혹은 테리 디영 (tdeyoung@rca.org).

장애 학습의 교육

by 베벨리 큐삭

레빗타운 공동체 교회(RCA), Levittown, NY

8 학년 때 시작한 우리의 이야기는 내겐 재미있던 학교가 조에게는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후에야 나는 그가 문법 수업서 2 번씩이나 뒤쳐졌음을 알았다.

카톨릭에서 자란 조는 나의 가족과 함께 개척교회를 결국 나가게 되었다. 1973 년에 우리가 결혼한 직후 (만난지 8 년 후) 조는 주님께 헌신하였고 뉴저지 리틀 폴스지역의 제이 개척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그때 조는 전임사역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였기에 신학교를 가기 위해선 검정고시나 학사학위가 필요했다. 조의 첫시도인 검정고시는 잘 되어 윌리엄 피터슨 대학교에 파트 타임공부와 이스트맨 코닥 회사에 취업해 다녔다.

학교는 그에게 힘들었고 나는 왜 그런지 힘든 시간을 가졌다. 우린 그의 학교 숙제들을 함께할 때 많은 뜨거운 토론을 하였다. 나는 그가 게으르다고 말하면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믿었다.

마지막엔 조는 크게 좌절돼 심리학자를 찾아 “무엇이 문제인가”를 검사를 받았다. 학교에서의 힘든일 말고도 그는 우리 아들 폴(1978 년 태어남) 이 아버지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 하였다. 검사 결과는 그의 지능 지수는 매우 뛰어난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반적인 읽기 능력에선 심각한 결핍이 있음을 보였다.

이 평가는 우리 둘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지금은 문제가 거꾸러 읽는 병인지 알기에 서로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후 여러 연구, 그의 공부 습관의 조정과 교수들의 도움과 많은 기도로 조는 대학교를 3.8 점 평균으로 졸업하였고 후엔 웨스턴 신학교의 목회학 석사과정과 고든 콘웰 신학교에선 박사과정을 마쳤다.

사역에서 설교준비를 돕는 음성 인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것이 조에겐 상당히 힘이 되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평신도들이 성경읽기를 돌아가면서 읽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회의 유능한 직원의 이해함도 큰 도움이 되었다.

조의 장애 학습 전문가는 “큐삭씨 처럼 장애를 갖고 자란 사람에겐 자아상이 매우 잘못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극복해야할 큰 것들 중의 하나이다. 우린 정말 따스하게 섬기고

이해하는 교회의 축복을 갖고 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쥘의 거꾸로 읽는 병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다. 우리 숨기지도 않고 그러나 이 병이 “까치발”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병이나 장애를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좋은 일이고 또 우리 스스로에겐 하나님이 각 자에게 특별한-완전치 않은-그러나 사랑스러운 것을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필요한 시기의 은혜와 사랑

by 진 디영

메시야 개혁교회(CRC), Hudsonville, 미시간주

2008 년 5 월에 의사는 맘이 철렁이는 소식을 내게 주었다: “당신 남편은 치매질환과 빠른 치매 특성이 있습니다.” 리치는 겨우 65 세인데! 난 많은 질문이 생겼다. 아직 어린데? 이 진행성 질환은 우리를 어디로 몰고갈 것인가? 난 끝까지 그를 돌볼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얼마동안 살까? 오직 하나님만이 답을 아시고 완전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우리 가족은 슬픔의 과정을 갖었다. 리치의 성격은 변하였다; 그는 인격의 정반대의 말과 행동을 하였다. 우리 그가 우리들의 이름을 모를때 슬퍼하였다. 우리 그의 인지 능력을 잃을 때 슬펐다. 그는 석사 학위를 가진 전기학자인데, 지금은 간단한 것도 힘들어 하고있다.

우리 이 어려운 길을 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왔다. 주님께 의지하는 것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있다. 우리 거실 벽에 큰 글자로 우리 삶의 구절을 붙였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잠언 3:5-6).

우리가 진단 받기 바로 전에 주님은 우릴 메시야 교회로 인도하셨다. 교회 성도들 특히 목사님은 우릴 사랑과 자비로 맞아 주었다. 곧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소그룹 성경공부에 교제하는것 뿐 아니라 그들은 리치의 장애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일을 변경까지 하였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장로님이 물어왔을 때, 내가 지원 그룹모임에 갔을 때 리치에겐 남자보호자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곧 그는 15 명의 자원 봉사자들을 보내왔다. 그는

그들이 왔을 때 좋아하였다. 나는 기독교인 보호자를 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 부목사님은 주선해 주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열려있는 치매를 돕는 보호자 그룹이 있다. 이 그룹의 지원은 다른 사람들과 나쁜 아니라 큰 기독교 전도단체로 매우 도움이 되고있다.

우리 교회의 훌륭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하나님, 영적 성장, 삶의 구절, 보호자로 봉사하는 사람들과 메시아교회 성도 지원 그룹께 감사드린다.

빛나는 별들

by 하비벨 시튼

햇빛 공동체 교회(CRC), Port St. Lucie, FL

그레이스와 언이스트 리들은 2002 년에 햇빛교회이 회원이었다. 그레이스는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위 질환으로 고통해 왔으나 아무도 몰랐다. 그때 그녀는 고급 파킨슨병을 갖은 남편을 열심히 간호해 왔다.

이런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스는 햇빛 선교사들과의 연락책을 맡아 월간 소식지인 햇빛 메신저를 정기적으로 보내오고 있었다. 그녀는 집사로 병든자를 방문해 자비의 일들을 서로 독려하였고 교회 도서관을 시작하면서 선교위원장을 계속 봉사해 오고있다. 매주 그녀는 여러 그룹들과 성경공부들을 아직도 인도하고 있다.

2009 년 1 월 에 남편은 죽을때 까지도, 그의 병세가 좋았다가 나뻐다가 하는 상태에도 언이스트는 메신저에 통찰력있는 글들을 써왔다. 그의 골반이 부러져 얼마간 집에서 떠나 있을 때에도 그의 얼굴은 의외로 밝았고 말투는 더 크고 정확하였다. 하나님은 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눈에 놀랍게도 소생케 하셨다. 그레이스는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방문하였고 교회는 계속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햇빛 교회는 언이스트의 장례식에 꼭 찾다.

51 년동안 그레이스와 언이스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구속의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빛을 발하였다. 우리 햇빛 교회는 특별히 그들의 신실한 참여과 헌신으로 복을 누렸다. 많은 어려움에도 그들은 주님안의 능력이 있었기에 계속적으로 봉사해 왔었다.

편지

70 년이 이상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 했어도, 나는 아직도 교회 출석과 설교 듣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 20 피트 떨어진 곳에서 얘기하는 입술을 읽고 있다고 더 이상 추측하지도 않고; 더 이상 회중들이 웃음이 없어도, 장난인지 의아해 합니다. 나는 깊은 청각장애자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바로 “루프”입니다.

근래 선각자 교회(CRC)에 회원된 청각에 문제있는 한 분이 청각 루프 기구를 헌납해 설치했는데, 그것은 내 보청기를 스위치의 틈과 함께 오른쪽 귀에 스피커의 음성으로 운반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지 못했던 말의 정확성을 하는 기능을 지녔습니다. 그후 여러해 동안 나는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프란 대니엘스, Sand Lake, 미시간

한 번의 하루 일

근 30 년전에 로벤과 존 론이 결혼할 때, 그들은 존의 파킨슨 병 초기 증상이 십여년이 지난 후가 되도록 그들의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어렵듯이 알지도 못했다.

품질 관리 전문가인 베트남 전쟁 노병 존은 교회 집사로, 음향기술자로, 성경공부 리더로 여러 일을 봉사하였는데, 하지만 그가 뉴저지 폼톤 호수시 폼톤 개혁교회를 마지막 방문한지 몇개월이 벌써 되었다. 최근 일어난 우울증세와 10 월에 한 척추 협착증 수술로 그는 힘들었지만, 그들의 함께하는 삶의 중심은 교회였다.

“존은 항상 방문자들의 방문과 함께해 줌을 감사하지요,” 교회 도서관의 자원봉사자며 교회 장애 옹호인 로벤은 말합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방문은 큰 힘이 되지만 그는 남성 성경공부 모임에 불참함을 정말 섭섭해 합니다.”

“교회 역시 내겐 큰 힘이 되고 있지요. 난 한번에 하루일을 하지, 미래에 살지 않지요. 매일 다른사람들은 변함을 보지만 난 존을 보면서 그냥 지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줌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그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짐을 알지만 존이 내게 있는 한 그를 끝까지 돌볼 것입니다. 나는 항상 생각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나는 무슨일이 생기면 잘 감당할거야’라고 말합니다.

“존은 때론 내게 이혼을 물으면서, ‘왜 당신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말하면, 나는 결혼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도 나의 남은 삶을 그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다 이동 장애가 있는 사람위해서 숙박을 마련하자고 하기보단, 로벤은 사람들에게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시고 또 교회에 못오는 자에겐 방문하라고 격려을 합니다. 그녀 역시 혹 파킨슨 병으로 말을 더듬는 증상을 가진 사람에게 말을 나누면서 시간갓기를 시도합니다.

(추신: 존 론은 이 소식지가 인쇄되기 전은 12 월 12 일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로벤과 함께합니다.)

편지자의 말

전임 옹호

어느 소수 그룹을 옹호하는 일은 개인적인 연관이 있으면 더욱 많은 의미를 더합니다 - 그가 장애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직장에 따라 소외 되어 있는지...

1990 년에 내가 신디와 결혼할 때, 나는 청각을 잃고 안수받고 사역하는 여자가 갖은 도전들을 알고 있었지만, 난 그것들이 얼마나 내게 깊은 영향을 주는지는 몰랐다.

나 역시 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청각장애는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도 나는 집에 있을때 청각장애에 대해선 매일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 처럼 배우는데 그것은 직접 옹호하거나 다른사람들과 에서든지. 청각장애 처럼 숨겨진 장애들을 가진 사람들을 옹호함은-나 아닌 신디를 위한것 처럼-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옹호하는 겁니다.

몇몇 장애 옹호자들은 장애의 많은 부분들에 전문가 이며, 필요에 대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들을 말하는 유익함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좋은 옹호자가 하나의 길입니다.

—테리 A. 디영

© 2013 북미주 개혁교회(CRC)와 미주개혁교회(RCA) 장애 사무처 사역. 장애물 헐기는 매 분기별로 CRC 장애 사무처-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0800, and P.O. Box 5070, STN LCD 1, Burlington, ON L7R 3Y8; 그리고 RCA 장애 사무처-4500 60th St. SE, Grand Rapids, MI 49512-9670 에서 발행한다. 마크 스트븐슨 목사, CRC 장애 사무처 디렉터(888-463-0272; mstephenson@crcna.org)와 테리 디영목사, RCA 장애 사무처 코디네이터(616-541-0855; tdeyoung@rca.org) 가 이 장애물 헐기를 함께 편집한다. 본 내용의 복사함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허가를 허용합니다.

북미주 개혁교회(CRC)와 미주개혁교회(RCA)의 공동 장애 사역

www.crcna.org/disability • www.rca.org/disability